



### 남약 '라메리조트&빌리지' 부지 분양

도심 외곽이 아닌 도심지인 남약신도시에 들어서는 럭셔리 타운하우스 '라메리조트&빌리지'가 단독주택 부지 분양에 나서 주목된다.

라메리조트&빌리지는 무안군 삼합읍 남약리 1416번지 2만6천446.28㎡(약 8천평)에 조성되는 대단지 하이엔드 고급 럭셔리 타운하우스다. 라메리조트&빌리지는 건물이 아닌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과 수요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여기에 경사면을 활용한 단지 설계로 조망권이 제약받지 않고, 병거형 고급주택으로 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같은 레벨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최대 8대까지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세대 평균 전용면적 100평 이상을 확보해 세대간 여유로운 거리까지 구현했다.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취미생활을 위한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꾸밀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설치로 여유로운 마당에는 잔디밭과 테라스 등으로 활용 가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임재만 기자

# 지역 대표 즉석 섭취식품 넘어 이제는 세계로

## '위기의 전남 쌀 구하자'... 쌀 소비 촉진 향토업체 찾아서

(2)현대푸드시스템

전남지역 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 진출해 K-푸드 알리기에 나섰다.

### 2013년 현대푸드 설립...농가소득 위해 원재료 활용 지역쌀 연 1천370t 사용해 대기업편의점 5천곳 납품

23일 (주)현대푸드시스템에 따르면 윤미숙(62·여)대표가 지난 2013년 장성군 황룡면에 설립해 대기업 편의점 즉석섭취 식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 현재 호남·영남·충청권 등 5천여 곳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푸드의 주력 상품으로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가 있다. 이외에도 즉석조리식품으로 냉동김밥·잡채·유부초밥 등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김밥과 삼각김밥 등 제품에 들어가는 쌀만 한해 1천370t에 해당하며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역 쌀을 고집해 사용한다.

또한, 역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3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지원사업 업체에 선정됐으며 5월에는 전남 농업기술원과 김밥레시피 개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장성군과 쌀 소비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속해 지역 쌀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대표는 수십년간 즉석섭취식품을 개발 생산하고 농가와 함께 상생해 지역 대표 우수 전문식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랜기간 즉석섭취식품 개발에 매진해온 윤 대표도 처음부터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기각각으로 변하는 경제 상황과 지역 문제, 블랙컨슈머들에 의해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도 있다. 거의 모든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하다 보니 자재 가격, 생산 원가 상승에도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2시간 생산공급이 가능한 편의점 특성과 지방에 거주하는 인력 채용에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위생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고객의 민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역경을 딛고 전문식품기업으로 성장한 (주)현대푸드시스템은 지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식품회사로 우뚝 서기 위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윤미숙 (주)현대푸드시스템 대표는 "즉석섭취

식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이 과정에 회사에선 150명의 생산인력을 고용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쌀, 김, 채소 등 각종 원재료 사용을 적극 활용해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장성 'K-푸드' 미국 진출 선적식을 개최해 뉴욕에 냉동김밥을 수출 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캐나다, 네덜란드와도 계약을 협의 중이다"며 "국내 고객에게 사랑받은 제품이 전 세계인의 입맛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K-푸드 냉동사업에 투자해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식품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태호 기자



(주)현대푸드시스템의 주력 상품인 김밥(왼쪽)과 지난달 장성군과 윤미숙 대표(가운데)가 쌀 소비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모습. (주)현대푸드시스템 제공)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2024. 8. 12 ~ 2024. 9. 30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REAL PRO MAN1**

1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타사 안마의자를 포함하여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 MAN1 최대 100만원,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가로 구매가능

2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초경량 무선청소기 WDD91증정 \*재고소진시까지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

## 광주은행, 전통시장 금융범죄 예방 활동

### 남광주시장서 '장금이 결연'...금융보안관 위촉도

광주은행은 23일 "최근 남광주시장 상인회관에서 '장금이 결연 및 금융보안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사기 예방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황인협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부장, 손승기 남광주시장 상인회장 및 광주·전남 주요 상인회장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활



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이다. 결연식에 이어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진행했다. 금융보안관으로 위촉된 5명의 광주·전남 주요 전통시장(남광주시장·말바우시장·대인시장·순천 옷장·목포 자유시장) 상인회장들은 소정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전통시장 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써 활동할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 나주신협, 6천억 자산 달성 쾌거

### 서민 금융기관 자리매김

나주신협은 23일 "자산 6천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나주신협은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1970년 3월 조합원 42명으로 출범해 2008년 광주·전남지역 최초 자산 1천억원을 돌파, 2022·2023년 광주전남종합목표관리 경영우수상을 수상하며 창립 후 51년 동안 가파른 성장을 이루며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최길주 나주신협 이사장은 "자산 6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준 임직원들과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신협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꾸준한 성장을 통한 내실있는 나주신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신협은 조합원자녀장학금 제도, 주거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업무협약, 안전 교통문화 확산 업무협약, 저소득 가정 아동 의료지원 후원금 전달 등의 나주 지역발전과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신협정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정중환 기자

## 광주시 "최고 숙련기술인 명장 찾습니다"

### 중서·현판 수여...기술장려금 1천만원 지원

광주시는 23일 "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4년 광주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금형·자동차·공예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며, 5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특정 분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광주지역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으로, 광주시에 주민

등록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대한민국 명장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인은 자치구청장, 기업체 대표, 임종별 회장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시민 의견수렴, 명장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30일부터 10월11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강 기자